

양궁 유망주 꿈 꺾은 '묻지마 폭행'

전국체전 광주대표 고교생 30대 남성에게 폭행 당해

광대뼈 함몰로 출전 포기...북부경찰, 용의자 추적

전국체육대회(16~22일)에 광주 대표로 출전할 예정이던 고등학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철제 의자로 폭행을 당해 크게 다쳤다. 피해 학생은 대회 출전이 무산된 것은 물론 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14일 광주 북부경찰과 피해 학생의 학부모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8시에 광

주시 북부 운암동 한 오락실에서 A(18)군이 30대로 보이는 남성에게 철제 의자로 얼굴을 가격 당했다.

A군은 경찰에서 "오라기 앞에 앉아 있는데 한 남성이 다가와 욕을 하며 옆에 있던 철제 의자를 들어 때렸다"고 진술했다.

피해 학생을 폭행한 남성은 도망가는

A군을 쫓아가다가 일행이 말리자 황급히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아버지는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아들이 의자에 맞아 정신이 혼미해지고 무서워서 현장을 피해 도망가려는데 그 남성이 따라와서 머리를 잡고 얼굴을 또 때렸다고 말한다"며 "인근 식당에 들어가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피해 학생은 오는 16일부터 강릉에서 열리는 '제96회 전국체육대회'에 남자 양궁 광주 대표로 출전할 예정이었다. 이 학생은 최근 2~3년 동안 전국대회에서 두

차례 2위를 차지했다.

A군의 아버지는 "전국체전은 운동을 하는 학생들이 1년 농사의 결과를 확인하는 자리인데, 결국 이번 사건으로 아들이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됐다"며 "대회 불참보다 광대뼈가 내려앉아 조만간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걱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사건이 발생한 주변의 CCTV 분석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용의자는 특정 짓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제복 경찰 폭행 다 찍힌다

어깨에 카메라 부착 근무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어깨에 휴대용 카메라를 메고 근무하는 미국과 같이 우리 경찰도 휴대용 카메라를 도입하기로 했다. 범인 체포 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예방하고 혹시나 있을 경찰의 과도한 물리적 행사를 막기 위해서다.

경찰청은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규칙'을 마련하고 다음달 중으로 일선 지구대와 교통경찰에 '웨어러블 폴리스캠' 100대를 보급해 시범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웨어러블 폴리스캠은 영상과 음성을 녹화·녹음할 수 있는 소형 카메라를 말한다. 누구나 육안으로 카메라임을 인지하고 녹화 중임을 알 수 있게 제작됐다. 연합뉴스



"문화전당 앞 도시정원 축제에 오세요" '광주 도시정원 옴니버스 축제'가 14일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옛 전남도청 일대)에서 막을 올렸다. 18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축제는 5일 정원, 정원디자인 시민교실, 플라마켓 등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각종 행사들로 진행된다. > 관련기사 16면 /김진수기자 jeans@

광산구 산하 기간제 근로자

내년 생활임금 시급 8190원

광주 광산구는 산하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내년 생활임금액을 시급 8190원으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 대비 136%에 달하는 117만171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구가 결정한 시급 8190원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상용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 총액의 50%를 적용해 산출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하는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을 반영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130~150% 수준으로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전남교총 교육자료전 '유령 수상자' 논란

원서도 안 낸 회장 부인이 수상...경찰 수사 착수

전남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남교총)가 전남교육자료전을 주관하면서 지 원서조차 내지 않은 교사를 수상자로 선정하는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 수상자가 전남교총 회장 부인으로 '회장 개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남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전남교총에 따르면 지난 8월 열린 전남교총 주관의 '제 46회 전남교육자료전'에서 전남교총 회장 부인인 모 초교 교감 A씨가 초등 일반자료 부문에서 2등급

수상자로 선정됐다.

A씨는 지난해 응시 계획서 제출 마감일(10월 27일)까지 출품신청서·교육자료 제작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지난 8월 열린 현장 심사때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13명의 수상자에 포함됐다는 게 전남교총 총측 설명이다.

당시 교육자료전에서는 과학과 체육 부문에서 1등급 수상자가 1명씩 나왔고 2등급 4명, 3등급 7명 등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전남교총 회장은 이와관련, "여러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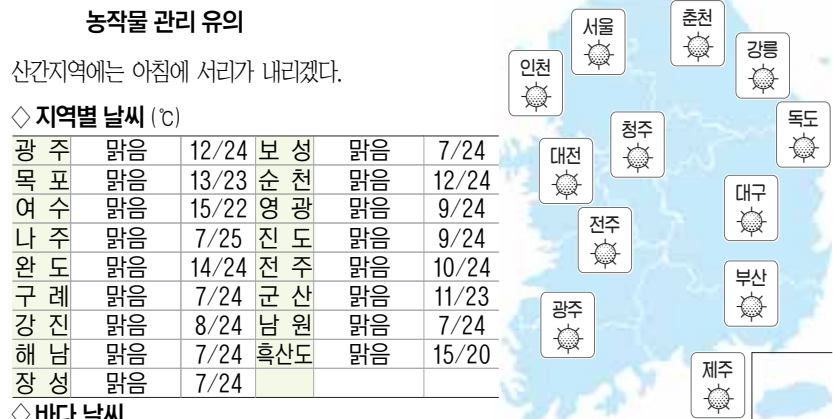
서류를 한꺼번에 결재하는 과정에서 꼼꼼하게 보지 못했다"면서 "부인이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사실도 최근에야 알았다"며 수상자로 선정해달라는 청탁 여부를 전면 부인했다. 사무국 관계자들은 또 "선정된 등급별 수상자들을 확인하는 서류에 사인도 직접 했는데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면서 "경찰 수사로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교총 회장은 지난 2012년 한국교총 주최 현장교육연구대회에 표절한 작품을 제출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기도 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38 해질 17:58
 일출 08:22 일몰 19:26



농작물 관리 유의

산간지역에는 아침에 서리가 내리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음	12/24	보성	맑음	7/24
목포	맑음	13/23	순천	맑음	12/24
여수	맑음	15/22	영광	맑음	9/24
나주	맑음	7/25	진도	맑음	9/24
완도	맑음	14/24	전주	맑음	10/24
구례	맑음	7/24	군산	맑음	11/23
강진	맑음	8/24	남원	맑음	7/24
해남	맑음	7/24	축산도	맑음	15/20
장성	맑음	7/24			

◇비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아바다 북~북동 0.5	북~북동 0.5
남부	면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남해	면바다(동)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서부	면바다(서)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생활지수

식중독	주의
보통	
운동	
산불	낮음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3:14	08:26
	15:43	20:50
여수	밀물	썰물
	10:13	03:44
	22:18	16:14

◇주간 날씨

16(금)	17(토)	18(일)	19(월)	20(화)	21(수)	22(목)
☀	☀	☀	☁	☀	☀	☀
12/24	11/25	12/25	12/24	12/25	12/24	12/24

여수 여도초교 학생 14명

경찰에 집회 신고한 까닭은?

여도초 공립 전환·외교 설립 반대

학교·시청 앞 시위 벌이기로

초등학생들이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여도초 공립 전환을 반대하며 경찰에 집회 신고를 냈다.

14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여수 여도초등학교 5학년 학생 14명은 여수시가 추진하는 사립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에 반

대하는 집회를 열기 위해 지난 12일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했다. 학생들은 15일부터 30일까지 학교 정문과 여수시청 민원실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학업과 운동, 친구와 놀이에도 바쁜 초등학생들이 집회 일정을 잡은 것은 외교 설립을 추진하는 여수시가 학생들의 학교인 여도초등학교를 공립으로 전환하고 같은 사학 법인이 운영 중인 여도중학교를 폐교한다는 방침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다.

학생들은 최근 학교 교직원들 비롯한 어른들이 여도중 폐교 방침 등에 반발하는 것을 접한 뒤 학급회의를 열고 "우리도 우리 뜻을 표시하자"고 의견을 모아 직접 경찰에 문의한 뒤 집회 일정을 잡았다고 한다.

초등학생들의 집회 계획이 알려지자 여도초 교직원과 학부모 등 어른들도 깜짝 놀란 모습이다. 학교 관계자는 "한 학생이 자신의 어머니의 조언을 받아 집회 신고를 낸 것으로 뒤늦게 파악했다"면서 "교직원과 학부모들은 외교 설립 반대운동만 벌였지, 정작 혼란을 겪었을 학생들에 대해선 신경을 쓰지 미안하고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여도초·중교 교직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외교 설립 철회를 촉구한 데 이어 초등학생까지 집회를 열고 반대하기로 하면서 여수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여수시는 여수국가산단 기업들의 기금으로 운영하는 여도학원 2개 학교 중 여도초교를 공립으로 전환하고, 여도중을 폐교한 뒤 그 자리에 외교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시민단체와 학부모의 반발을 사고 있다.

여수시는 고교 평준화 이후 관내에서 매년 수백명의 중학생들이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등 지역 교육의 경쟁력 하락을 걱정하는 자치단체와 함께 지역 명문고를 설립해야 한다는 일부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외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에스골프

모든분들이 만족하십니다!!

전국 300곳 골프장 무기명 선불카드

그린피 "전액무료"

검색창에 **부킹몰** 을 치세요.

전라.광주지사상품 (수도권 및 부산, 대전상품 상이하니 별도문의 바랍니다.)

구분	가입금액	회원구성	이용기간	연 이용횟수	월 이용횟수	공통사항
S-트윈	670만원	무기명 2인	3년	총 80회 (년 30회)	주중 6회 또는 주중 2회, 주말 2회	그린피(세금포함) + 카트비 전액 무료지원
S-VIP	1,320만원	무기명 4인		총 160회 (년 60회)	주중 12회 또는 주중 4회, 주말 4회	

※ 해당 골프장과는 무관하며 에스골프는 부킹몰(주)에서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 VAT포함 금액

에스투어

해외골프투어

동남아 원하시는 곳 어디나 가능!!

"총 50박 무료!!"

동남아상품 (태국,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구분	분양가	회원구성	이용기간	회원혜택(무료)
S-투어(싱글)	297만원	기명1명	5년(년10박)	1박 18홀 기준 전액무료
S-투어(트윈)	495만원	기명1명+ 무기명1명		
S-투어(VIP)	880만원	기명1명+ 무기명3명		

※ 상기 금액은 VAT포함 금액

문의전화 062-415-8811

지사 서울(수도권지역) 1566-9799 경남(경남,부산지역) 051) 916-7070
 대전(충남,대전지역) 042) 320-7800 부산(경남,부산지역) 051) 916-9700
 대구(경북,대구지역) 053) 248-6666 울산(경남,부산지역) 052) 260-4575